감독 이상민, 마지막 승부 제 2막을 열다

바스켓볼 브레이크

| 지금은 오빠들의 감독시대

문경은·김영만 이어 '원조오빠' 삼성 사령탑
유재학·허재 감독 등 1980년대 학번에 도전장

지난해 말 1990년대의 일상을 다룬 케이블TV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극중 여주인공인 성나정(고아라 분)은 연세대 농구부의 간판스타 이상민의 열성적 팬이었다. 성나정뿐 아니라 당시 여중고생이라면 누구나 그의 이름에 설레고, 농구장을 찾아 '오빠'를 연호했다. 남자프로농구(KBL) 삼성은 13일 1990년대 여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원조 오빠' 이상민(42)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마지막 승부 세대'의 '감독시대'

1990년대 초중반은 한국농구의 '르네상스시대'였다. 뜨거운 농구인기에 힘입어 '마지막 승부'라는 농구 드라마까지 큰 인기를 누렸다. 당시의 농구열기는 KBL 출범의 초석이었다. 이상민, 문경은, 전희철 등은 당시 농구인기의 최전방에 섰던 스타플레이어들로, 이른바 '마지막 승부 세대'라고 불린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마지막 승부 세대'는 지난해 서장훈을 끝으로 모두 은퇴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서장훈, 현주엽 정도를 제외한 이들 대부분은 지도자, 해설위원 등으로 농구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2012~2013시즌을 앞두고는 문경은(43) 감독이 SK의 사령탑으로 정식 취임(2011~2012시즌은 감독대행)하면서 농구대잔치 세대 중 가장 먼저 감독 자리에 올랐다.

문 감독은 정식 부임 첫 시즌부터 SK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의 성공은 젊은 새내기 감독들에 대한 시선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농구대잔치 시절 중앙대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김영만(42)이 8일 동부 리빌딩의 사명을 짊어지고 신임 사령탑에 오른 데 이어 이상민까지 삼성의 명가 재건을 위해 신임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바야흐로 '마지막 승부 세대'의 본격적인 '감독시대'를 열었다.

●1980년대 학번에 도전장 내밀다!

문경은, 이상민, 김영만 등 농구대잔치 시절 대학세를 이끌던 1990년대 학번들은 유재학, 허재 등 1980년대 학번들이 주축이 된 실업팀을 위협하며 한국농구의 세대교체를 앞당겼다. 현재 KBL 사령탑들의 판도도 그들의 선수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대 KBL 감독 구도의 대세는 1980년대 학번이다. 모비스를 2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으로 이끈 유재학(51) 감독을 비롯해 LG 김진(53), kt 전창진(51), 오리온스 추일승(51), KCC 허재(49), 전자랜드 유도훈(47) 감독 등이 모두 1980년대 학번이다. 1990년대 학번으로는 유일했던 문 감독에게는 이상민, 김영만 신임 감독의 가세가 반갑다.

1980년대 학번과 1990년대 학번의 세대간 대결 못지않게 1990년대 학번끼리 벌이는 지략대결도 다음 시즌의 관심거리다. 문 감독은 이 신임 감독과 연세대 시절 한솥밥을 먹은 사이이며, 김 신임 감독과는 대학~프로 경력 내내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해온 라이벌이다. 아울러 1972년생 동갑내기이자, 감독으로서 첫 시즌을 맞은 이상민, 김영만 두 신임 감독의 대결도 팬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삼성이 이상민 코치(오른쪽)를 신임 감독으로 승격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승부 세대' 오빠들의 감독 시대가 열렸다. SK 문경은 감독(왼쪽)의 성공이 이들의 감독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다. 스포츠동아DB

삼성생명 해리스 귀화, 타구단이 발목 잡나?

귀화선수로 분류시 여자농구 타구단과 마찰
삼성생명 "해리스 1·2쿼중 한 쿼터만 뛸 것"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이 외국인선수 앰버 해리스(26)의 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열리는 6개 구단 사무국장회의에서 나머지 구단들이 어떤 태도를 밝힐지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2012~2013시즌 팀에서 활약했던 해리스의 귀화를 추진했고, 최종 성사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94cm의 해리스는 2012~2013시즌 25경기에서 평균 20점에 1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삼성생명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이끌었다. 귀화가 확정되면 해리스는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팀의 전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전력 또한 급상승하는 만큼 타 구단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졌다.

삼성생명은 10일 6개 팀 구단주 간담회에서 해리스의 귀화 문제를 꺼내 '해리스를 1·2쿼터 중 한 쿼터만 뛰게 하고 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여자프로농구의 외국인선수 제도는 구단별 2명 보유에 1명 출전이다. 해리스가 귀화하면 국내선수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타 회원사의 입장을 고려해 '제한적 출전'이라는 사전조치를 먼저 제안한 것이다. 만약 다른 구단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다음 시즌에 용병을 1명밖에 뽑을 수 없다면, 삼성생명으로선 해리스의 귀화를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관계자는 13일 "16일 사무국장 회의 때 각 구단이 감독 등과 협의한 구단별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각 구단의 입장을 들어보겠지만,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2012~2013시즌 삼성생명에서 뛰었던 앰버 해리스(왼쪽)는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을까. 삼성생명이 추진 중인 해리스의 귀화가 성공하려면 다른 5개 구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스포츠동아DB

▶1면에서 이어집니다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다!"

"얼떨떨하다"는 이상민 신임 감독은 "구단의 말대로 팀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줄 것인지를 앞으로 생각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다음 시즌 전력이 좋아질 팀들이 많다. 우리도 그에 맞춰 자유계약선수(FA)와 용병 선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구단과 상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감독은 "어제(12일) 저녁에 (감독 선임) 통보를 받았고, 오늘 오전에 단장님과 한 차례 미팅을 했다. 이제부터 진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코칭스태프 인선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자 경력이 짧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달라진 삼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코치들과 함께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